

◇강원에코호텔에 2015 부대행사인 심포지엄 특강이 26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려 정유철 대한건설협회 자문변호사가 '건설시장 전망·건설클레임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내년 건설수주액 10.6% 감소 전망”

강원에코호텔에 심포지엄

내년 국내 건설수주액이 올해보다 10.6% 감소한 12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강원에코호텔에 2015 행사로 열린 2016년 건설시장 전망 및 건설클레임 대응전략 심포지엄의 ‘2016년 건설시장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수주액이 워낙 높아 내년엔 10.6% 감소하지만 민간 부문은 경우 올해와 2007년을 제외하고 내년 예상수주액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주액 감소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내년 건설투자가 올해 대비 3.5% 늘어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일 연구원 “우려 수준 아나”
“취약 시설 보수·재개발” 조언

정유철 변호사 클레임 대응 강의
“명확한 약정·합의 서면화” 강조

그는 다만 “신규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시작되고 정부의 SOC 예산 감소가 예상된다”며 “노후·안전취약 시설 유지보수 및 재개발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기 집체 국면은 상대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정유철(법무법인 울촌) 대한건설협회 자문변

호사가 ‘건설클레임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민간건설사의 분쟁은 수급인의 대금수령 확보의 제도적 장치 미흡,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 관행 등으로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고 특히 설계변경 중간합의 등의 내용을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철 강원건설단체 연합회장,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도와 18개 시·군 관련 공무원, 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인철 회장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의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춰야 한다”며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홍예정기자

/ 이모저모 /

지자체별 홍보부스 인기몰이

◇강원에코호텔에는 강원도를 비롯해 춘천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홍보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인기. 각 지자체는 주력사업과 관광개발사업, 지역 축제 등을 집중 홍보. 2018동계올림픽 빙상·실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시와 평창군에서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컬링 체험행사 등 퍼포먼스도 진행. 홍천군·영월군·양구군은 지역 농특산품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유도. 화천군 대표로 나온 화천한옥학교가 학생들의 졸업 작품으로 부스를 꾸며 눈길.

단체 관람객 이어져 인산인해

◇박람회 2일 차를 맞아 단체 관람객이 방문해 행사장이 인산인해. 오전에 강원대.관광경영학과 교수와 학생 50여명이 박람회를 찾아 업체들의 신기술과 제품을 관람.

학생들은 특허를 받은 신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전시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

오후에는 도내 시·군 건설·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부스를 돌아보며 내년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기술 및 제품의 정보를 수집.

기념품 개장 10분 만에 소진

◇이번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강원에코호텔에조직위 사무국이 마련한 기념품이 개장 10분 만에 소진.

지난해 차량용구급함에 이어 올해는 고가의 글래스락 세트가 준비돼 오전 10시 오픈시간에 맞춰 몰려든 방문객들에게 선물로 제공. 지역 주민들은 도내 유일의 주택건설·건축·박람회를 관람하는 동시에 고급 기념품까지 받아가며 함박웃음. 28일까지 진행되는 강원에코호텔에서는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

주행·건설·건축박람회



홈페어2015
GANGWON ECO HOME FAIR

사람·자연 소통하는 21세기형 한옥 개발

(주)한옥과 문화 (주)한옥과 문화(대표:신지용·사진)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전통 건축 컨설팅 및 시공 전문기업이다.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건축물을 테마로 컨설팅과 전문교육·연구·시공 등을 맡아 해주고 한옥의 대중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도 하고 있다. 또 전통기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한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



는 지용한옥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옥의 대중화를 위한 현대적 접근, 21세기형 한옥 개발 등을 테마로 △한옥 컨설팅 및 설계·시공 △전문 목수 교육과정 △목재를 이용한 체험학습 및 키트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0년 노하우 지닌 고효율 냉난방기 설비

(주)캐리어공조 춘천의 (주)캐리어공조 (대표:황영진·사진)는 냉난방기 공조 및 건설업 캐리어에어컨 대리점으로 도내 시스템 절전형 냉난방기 기계설비 등의 애프터서비스 처리를 담당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제품은 인버터 하이브리드 심야보일러 및 일반전기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기 등이 있다. 캐리어의 100년 기술로 자랑하는 인버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심야전기보일러 대비 소비전력이 67%나 적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또 국내 최저 소음설계, 최첨단 듀얼 인버터 압축기 기술, 스마트폰 원격제어 운전 등으로 저소음·첨단성·편리성도 우수하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각 가정이나 기업에서 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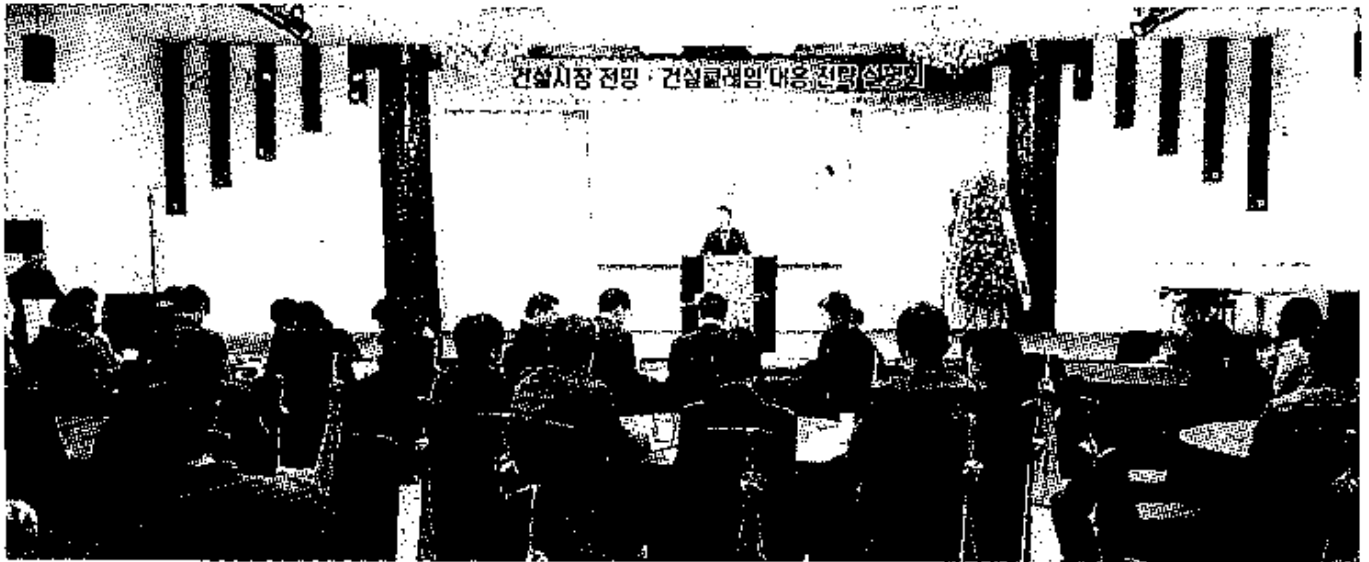
탄광지역 폐자원 신제품으로 선순환

에코스톤코리아 춘천 에코스톤코리아 (대표:한기웅·사진)는 폐자원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선순환시키는 업사이클링디자인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도 탄광지역에서 채굴과 폐석의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폐자원의 단순한 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제품소재로 개발하고 이를 금속 등 고에너지 소비 소재



를 대체할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업체의 제품은 대표적으로 폴리머콘크리트계열과 섬유강화 석재복합재료로 구분되며 현재 개발된 생산품은 펜스, 방음벽, 아트벤치, 가로수보호대, 옹벽용 조립패널, 스피커 박스, 가이드사인, 가로등주 보호커버 등이 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건설시장전망·클레임 대응 설명회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26일 춘천 베어스호텔 컨벤션홀에서 도 및 18개 시·군 건설건축담당 공무원 및 건설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시장 전망 및 건설클레임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016년 건설시장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해 강의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을촌 변호사는 건설클레임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